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A FORGERY OF MAGIC
가제 : 위조된 마법
저자 : Maya Motayne
출판사: ICM Partners
발행일: -
분량 : -
장르 : YA 소설

*** 마법이 어디든, 어느 것에든 깃든 왕국 카스탈란에서 펼쳐지는 *YA* 판타지 스릴러**
*** 어쩔 수 없이 왕좌에 올라야 하는 왕자, 특별한 변장 마법을 영원히 잃게 될 위기에 처한 떠돌이 소녀,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과 뜻하지 않게 풀려버린 위험천만한 고대 마법**

카스탈란 왕국에서 마법은 어디에나 있고 어느 것에나 길들어 있다. 이 왕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누구나 아주 어릴 때부터 마법을 배운다. 부유한 귀족 출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아예 전문 과외교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곳곳에 흘러 다니는 마법의 힘을 집중해서 느끼고 읽는 것부터 배운다. “마법은 세상에 흐르는 순수한 힘이지만, 안착할 곳, 집이 필요하다. 마법사는 바로 그 집이다.” 알피는 마법을 가르쳐 준 선생님의 말을 여전히 기억한다. 마법 중에서도 선택된 소수에게만 허락된다는 프로피오 마법, 늘 발 밑에 따라다니는 그림자로 구분되는 특별한 마법사가 된 알피는 어느 밤, 왕궁의 모두가 잠자리에 든 시각에 조용히 왕궁 밖으로 나간다. 얼굴에는 여우 가면을, 몸에는 기다란 망토를 두른 그는 ‘이제 너는 왕위를 물려 받아야 하는 위치에 올랐으니,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는 아버지의 낮고 강한 음성을 애써 무시하며 발길을 재촉한다. 원래 왕위를 물려받기로 했던 데즈 형만 돌아올 수 있다면, 왕궁도 알피 자신도 다시 평화를 찾을 것이다. 그것이 이 야심한 시각, 위험을 무릅쓰고 알피가 특별한 외출을 하는 이유였다. 그가 마법의 통로를 통해 도착한 곳은 레이얀이 운영하는 거대한 농장이었다.

같은 시각, 농장과 이어진 긴 담벼락 밑에 누군가가 머리를 숙인 채 조심스레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 부자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처럼 가난하게 죽을 때까지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파르르 떠는 소녀의 이름은 핀. 마침내 찾던 표적이 나타나자 핀은 순식간에 달려가 고급스럽게 차려 입은 상대 여성을 구석에 몰아 세운다. 외마디 비명도 지르기 전에, 핀은 그 여자의 가방을 뒤져 용 얼굴 모양의 마스크를 꺼낸다. 혹시라도 가면이 벗겨질 때를 대비하여, 핀은 작은 거울을 들고 여자가 보는 앞에서 손

가락으로 찰흙 반죽이라도 하듯 자신의 얼굴을 이리저리 만지며 여자의 얼굴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다. 핀 역시 몇 안 되는 프로피오 마법사라는 사실에 여자가 기겁한 사이, 눈깜짝할 사이에 변신을 마친 핀은 용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조금 전 알피가 지나간 농장으로 성큼성큼 들어선다.

마법을 누구든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처리하는 강력한 무기이자 변신 망토라도 걸치듯 마음 먹기만 하면 뚝딱 겉모습을 바꿀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재능 넘치는 변신 마법사, 핀은 이미 몇 년째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얼굴로 이리저리 바꾸는 이 놀라운 마법은 큰 빚에 쫓기고 있는 핀의 처지에서는 그야말로 생명 줄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제 마지막 계획만 성사시키고 자신을 쫓는 사람들을 피해 달아나려던 핀은 계획이 성공하기 직전에 붙들려버린다. 그들은 핀에게 왕궁에 숨어 들어가 전설로 전해오는 보물을 훔쳐오면 영원히 놓아주겠다고 약속한다. 만약 핀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프로피오 마법을 완전히 잃게 된다.

한편, 이해할 수 없는 죽음으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데즈 형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 받을 왕자가 된 알피는 형을 되살릴 수 있는 마법을 찾아 다니다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만다. 형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에, 절대 깨우지 말아야 할 고대의 위험한 마법을 소환한 것이다. 세상을 집어삼킬 수도 있는 무서운 마법이 풀려난 상황에서, 알피는 자신처럼 프로피오 마법을 쓸 줄 아는 소녀와 우연히 만난다. 바로 핀이었다.

두 사람은 알피가 세상에 풀어준 악한 마법을 찾아 갇혀 있던 곳에 다시 넣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다. 그러나 각자의 목적이 있는 상태로 시작된 용감한 여정은 두 사람을 잊고 있었던, 혹은 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과거의 숨겨진 비밀로 인도한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인 작가는 모국의 전통을 생생하게 살린 특별한 왕궁, 카스탈린을 배경으로 현대 사회와 매우 흡사한 현실적인 사회적 환경에서 모든 사람이 마법을 쓴다는 독특한 설정이 더욱 흥미를 자아내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야 모테인(Maya Motayne)은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콜롬비아 대학교 출판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펭귄 랜덤하우스 편집자로 일하면서 다양한 아동 도서를 소개하고 있다.

제목 : THE LAND OF NEVERENDINGS
가제 : 네버엔딩 스토리의 나라
저자 : Kate Saunders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7년 10월 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코스타 상 수상작, *5*만 *5,000*부 판매된 베스트셀러 『*Five Children on the Western Front*』의 작가가 선보이는 또 한 편의 기발한 신작**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토이 스토리』, 『피터팬』이 결합된 듯한 신기하고 흥미로운 모험 이야기**

어릴 때 어딜 가나 데리고 다니고 잘 때도 끌어 안고 사는 인형이 모두 하나쯤은 있었으리라. 아이들은 인형을 동생처럼 업고 다니고, 밥 먹을 때 옆에 앉혀 놓고, 다른 인형과 대화를 나누며 인형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세상을 상상해서 이야기하곤 한다. 에밀리가 그런 상상의 나래를 처음 펼친 인형은 언니 홀리의 곁에 꼭 붙어 있던 푸른색 테디베어, 블루이였다. 블루이는 언니가 태어나서 석 달 전, 열 여섯 살의 나이로 결국 세상에 떠나기 전까지 늘 언니 옆에 있던 인형이자 엄마아빠도 가족처럼 대했던 또 한 명의 식구였다. 에밀리는 거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채 침대에 꼼짝 없이 누워 있는 언니 곁에서 블루이의 또 다른 삶을 지어내어 언니에게 들려주곤 했다. 배경은 '스모커룬'이라는 가상의 세상. 때로는 언니도 등장해 둘이 함께 온갖 모험을 즐긴다는 다소 바보 같은 이야기에 언니가 무척이나 기뻐한다는 걸 에밀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인형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면? 꿈과 현실과 넘나드는 공간, 어디까지가 환상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형들이 에밀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고, 블루이의 소식을 전해준다면? 순수 아동문학의 계보를 이을 작가로 인정 받는 재능 있는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존재, 언니와 블루이를 한꺼번에 잃은 에밀리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웃음과 눈물을 한꺼번에 선사한다.

여름 방학이 시작된 직후, 언니는 또 한 번의 발작을 일으켰다. 하지만 여느 때처럼 다시 의식은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엄마는 장의사에게 블루이를 건네며 언니가 누운 관에 함께 넣어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의 심장이 그렇게 허망하게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에밀리는, 집 안이 텅 비고 언니 방을 가득 채웠던 의료장비며 휠체어가 다 사라진 뒤에 또 한 가지 생각지도 못한 감정에 휩싸인다. 블루이가 너무나 그리웠다. 블루이는 언니의 인형이고, 그러니 언니 곁에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동안 만들어온 블루이의 이야기들은 모두 엘리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라 나중에는 정말로 블루이가 이야기의 내용처럼, 스모커룬에서 엉뚱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 눈 앞에서 사라지고 나니, 더 이상 블루이의 이야기를 지을 수가 없었다. 이제 곧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에 인형이 그

립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언니 생각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아빠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이 그리운 감정을 엘리스는 일기처럼 노트에 써 내려갔다. 언니가 살아 있을 때 들려준 블루이의 이야기들, 가령 어느 날 블루이가 차 마시는 파티를 열고 언니를 초대했는데 차 주전자와 첫 잔이 모두 캐러멜로 되어 있어서 뜨거운 물을 붓자 다 녹아버린 웃지 못할 사건 등 떠오르는 대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블루이를 추억하는 건 곧 언니와의 기억을 떠올리는 일이기도 했다.

시간은 흘러 낯선 친구들로 가득한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에밀리에게는 그리 반갑지 않은 변화가 시작됐다. 어릴 때부터 붙어 다니던 옆집 친구는 언니가 죽고 난 뒤부터 왠지 에밀리를 불편해하고, 같은 중학교에 다니면서도 별로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 새로 사귄 친구들은 자꾸 형제가 있냐고 물어서 에밀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가만히 집에 있으면서 언니 생각만 하다 지친 엄마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곳을 찾았고, 아빠는 늘 퇴근이 늦은 편이라 에밀리는 방과후에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이웃집 루스와 함께 몇 시간을 보내야 했다. 에밀리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적응하기 힘들다고 느끼던 그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한밤중에 텅 빈 홀리 언니의 방에서 불빛이 환하게 흘러 나오더니 인형들이 하나 둘 찾아와 에밀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지독하게도 못 생긴 두꺼비부터 플라스틱 콧수염을 자랑스레 달고 총총 걸어 다니는 한 무리의 펭귄 떼까지, 자신들이 스모커룬에서 왔다고 소개하는 인형들은 블루이가 전해달라고 했다며 소식까지 전하며 조용한 집 안을 마구 돌아다닌다. 이게 다 꿈일까? 왜 자신이 지어낸 세상에서 왔다는 인형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걸까? 블루이가 전하려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걸까?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립감에 혼자 꽁꽁 갇혀 있던 에밀리는 신기한 모험과 상상의 세계로 한 걸음씩 들어간다.

무엇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깊은 슬픔과 다친 마음이 따뜻한 위로와 배려로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인형들의 유쾌하고 재미 있는 에피소드와 멋지게 결합된 놀라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케이트 선더스(Kate Saunders)는 저술가,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Beswitched』, 『Magicalamity』, 『The Whizz Pop Chocolate Shop』 등 성인과 아동을 위한 책을 여러 권 집필했다. 코스타 상(Costa prize) 수상작이자 카네기 메달, 가디언 도서상 결승 후보에 오른『Five Children on the Western Front』는 5만 5,000부 이상 판매됐다.